01

FTA 동향

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상반기 김치수출량 '역대 최대'… 미국·유럽서 인기
② 농식품부, "영국에 삼계탕·냉동치킨 수출"… 검역 절차 마무리
③ 산업부, 한·파라과이, TIPF 체결… 남미공동시장 국가 중 두번째
④ 해양수산부, 종이 없는 검역 시대 첫 걸음… 호주산 수입수산물 전자검역증명서 시행
⑤ 관세청, 전자상거래 수출기업들, 쉽고 저렴한 수출길 열렸다
⑥ 한국원산지정보원, 'FTA BRIEF' 정기 발간
⑦ 한국원산지정보원, FTA 활용 무역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한민국 최고 FTA·원산지 솔루션 'FTA-PASS'보급
⑧ 한국원산지정보원, 교육자격팀 'FTA·원산지 분야 전문인력 양성'

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상반기 김치수출량 '역대 최대'… 미국·유럽서 인기

② 농식품부, "영국에 삼계탕·냉동치킨 수출"… 검역 절차 마무리

③ 산업부, 한·파라과이, TIPF 체결… 남미공동시장 국가 중 두번째

④ 해양수산부, 종이 없는 검역 시대 첫 걸음… 호주산 수입수산물 전자검역증명서 시행

⑤ 관세청, 전자상거래 수출기업들, 쉽고 저렴한 수출길 열렸다

⑥ 한국원산지정보원, 'FTA BRIEF' 정기 발간

⑦ 한국원산지정보원, FTA 활용 무역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한민국 최고 FTA·원산지 솔루션 'FTA-PASS'보급

⑧ 한국원산지정보원, 교육자격팀 'FTA·원산지 분야 전문인력 양성'

FTA 동향 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상반기 김치수출량 '역대 최대'… 미국·유럽서 인기

전 세계에서 K-푸드 열풍과 발효·비건 식품 수요가 늘면서 올해 상반기 김치 수출량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식품수출정보(KATI)와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김치 수출량은 2만3천900t(톤)으로 집계됐다.

최근 10년 동안 상반기 김치 수출량은 증가세를 이어오면서, 2015년 1만1천500t의 두 배로 늘어났다.

상반기 김치 수출량을 연도별로 보면 2015년 1만1천500t, 2016년·2017년 1만1천900t, 2018년 1만3천600t, 2019년 1만4천700t, 2020년 2만300t, 2021년 2만2천100t, 2022년 2만2천200t, 작년 2만2천800t, 올해 2만3천900t 등이다.

우리나라의 김치(HSK 제2005.99-1000호) 최근 10년간 상반기(6월) 수출 실적

단위 : 톤

구분	품목명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김치	11,484	11,908	11,930	13,635	14,716	20,255	22,139	22,185	22,843	23,849

자료 : Kita 수출입통계

다만 올해 상반기 수출액은 8천380만달러(약 1천149억원)로 2021년 8천673만달러(약 1천189억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특히 미국 등 서구권 수출이 큰 폭으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 대미(對美) 김치 수출량은 6천600t으로 작년 동기보다 20% 증가했다.

우리나라의 對미국 김치(HSK 제2005.99-1000호) 수출 실적

단위 : 톤

구분	품목명	2021	2022	2023	2024(6월)
	김치	7,950	8,569	10,660	6,647

자료 : Kita 수출입통계

매년 상반기 수출량을 보면 2021년 4천t, 2022년 5천170t, 작년 5천470t 등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다.

상반기 네덜란드로의 수출량도 2021년 790t, 2022년 930t, 작년 970t 등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 수출량은 1천300t으로 작년 동기보다 34% 증가했다.

우리나라의 對네덜란드 김치(HSK 제2005.99-1000호) 수출 실적

단위 : 톤

구분	품목명	2021	2022	2023	2024(6월)
	김치	1,378	1,574	1,756	1,331

자료 : Kita 수출입통계

캐나다로의 김치 수출량도 2021년 상반기 430t에서 올해 상반기 900t으로 두 배가 됐다. 이는 작년 동기보다 34% 증가한 수치다.

우리나라의 對캐나다 김치(HSK 제2005.99-1000호) 수출 실적

단위 : 톤

구분	품목명	2021	2022	2023	2024(6월)
	김치	841	1,036	1,368	1,097

자료 : Kita 수출입통계

수출액 기준으로도 미국이 2천410만달러(약 330억원)로 18.9% 늘면서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

네덜란드(560만달러), 영국(420만달러), 캐나다(380만달러)는 각각 37.3%, 65.3%, 41.6% 늘었다.

최대 김치 수출국인 일본에 대한 올해 상반기 수출량은 지난해 동기보다 약 11.9% 줄었다. 수출액은 엔저(엔화 약세)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16.1% 줄어든 2천830만달러(약 388억원)로 집계됐다.

식품과 유통업계는 특히 미국과 유럽에서 K-콘텐츠 확산과 발효·비건 등 건강식품 수요 확대가 김치 소비 증가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관계자는 "미국을 중심으로 발효 식품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커지고 있다"며 "유럽에서도 K-콘텐츠와 K-푸드 열풍 영향으로 규모는 작지만, 수출액이 빠르게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상 관계자는 "김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세계 시장에서 인지도가 크게 높아져 발효·건강 식품으로 수요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김치는 해외에서 면역력을 높여주는 건강식품이라는 인식이 확산해 '코로나 특수'를 누렸다.

연도별 김치 수출량은 2019년 2만9천628t에서 코로나19 사태 첫해인 2020년 3만9천750t으로 급증한 뒤 2021년 4만2천540t으로 증가세를 이어갔다. 2022년 4만1천120t으로 다소 줄어든 김치 수출량은 작년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 4만4천40t으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FTA 동향 ②

농식품부, “영국에 삼계탕·냉동치킨 수출”… 검역 절차 마무리

앞으로 우리 기업들은 삼계탕과 냉동치킨 등 열처리 닭고기 제품을 영국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국에 열처리 닭고기 제품을 수출하기 위한 검역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두 부처는 영국 정부와 지속 소통하면서 영국의 수입 위생·검역 요건을 면밀히 검토해 왔고, 수출증명서 서식을 마련했다.

규정 및 절차			제출 서류
①	■ 영국 정부가 승인한 국가 및 시설에서 생산되어야 함 (영국의 승인을 받은 생산/제조시설 목록) [생산 및 제조 시설 등록 절차]		
	1. 도축장	a. 검역시행장 지정 (신청: 관할 농림축산검역본부)	- 검역시행장 지정신청서 - 영업허가증 사본 - 시설평면도 등
		b. 수출작업장 등록 (신청: 관할 농림축산검역본부)	- 수출작업장 등록 신청공문 - 도축장 영업허가증 - 시설 평면도 - 검역시행장 지정서 - 미생물관리 프로그램 - 잔류물질관리프로그램

사진 : 연합뉴스

규정 및 절차			제출 서류
①	2. 가공장	a. 검역시행장 지정 (신청 : 관할 농림축산검역본부)	- 검역시행장 지정신청서 - 영업허가증 사본 - 시설평면도 등
		b. 수출작업장 등록 (신청 : 관할 지방 식약청)	- 수출작업장 등록 신청서 - 영업허가증(신고증) - 품목제조보고서 - HACCP 인증서 - 선행요건 및 HACCP 관리 프로그램 - 미생물 및 잔류 물질 검사 관리 프로그램 및 관련서류 - 검역시행장 지정서(단, 멸균제품 수출가공장 제외) 등
②	■ 영국으로 수입되는 동물성 제품(육류, 육가공품(가금육) 등)은 상온/비상은 조건에 상관없이 정부 기관에서 발급한 공식 수출증명서 서식을 발급받아야 함 **[수출증명서 발급 절차]**		
	1. 도축검사(수출도축장) (신청: 관할 농림축산검역본부)		** EU 기준 원료육 추가 검사(페닐부타존, 납, 카드뮴)의 경우, 영국과는 협의된 사항이 아님*
	2. 수출 검역 검사증명서 발급(수출자) (신청: 관할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관할 지방 식약청)		[검역본부 구비 서류] - 영업허가증 - 품목제조보고서 - 수출신고필증 - 제품 생산 내역서 - 현물 또는 완제품 라벨 사진 - 수출 열처리 가금육 관련 공인기관 검사 성적서
			[지방청 구비 서류] - 영업허가증(신고증) - 품목제조보고서 - 수출신고필증 또는 선하증권 등 선적서류 - 필요시 추가 서류

자료 : 식약처 누리집, 열처리가금육제품 등 EU 수출 검역·검사 요령

정부는 지난 1월 영국에 수출 가능 여부를 문의했고 지난 5월 영국에서 위생·검역 요건 등에 대한 정보를 받았다. 작년 12월 유럽연합(EU)으로 열처리 닭고기 제품 수출이 허용되자, 영국으로의 수출을 추진한 것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영국은 옥스퍼드 사전에 '치맥'이라는 단어를 올릴 정도로 K-푸드에 관심이 높다"며 "이번 닭고기 제품 수출은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K-푸드와 한국 식문화가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판촉, 신규 구매자 발굴, 유통매장 입점, 해외 공동물류센터 확충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유럽 내 경제규모 2위인 영국으로의 수출 협상이 마무리되면서 한국 식품(K-Food)의 글로벌 확산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FTA 동향 ③

산업부, 한·파라과이, TIPF 체결… 남미공동시장 국가 중 두번째

사진 : 연합뉴스

한국과 파라과이 양국은 2024년 8월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를 체결했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밝혔다. 이날 서울에서 열린 체결식에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과 하비에르 히메네스 파라과이 산업통상부 장관이 참석했다. 브라질에 이어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 국가 중 두 번째로 체결한 TIPF다.

파라과이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와 함께 세계 5대 경제블록인 남미공동시장의 회원국으로, 지난해 4.6%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또 다른 남미공동시장 국가들에 비해 저렴한 임금, 낮은 세율, 유리한 원산지 조건 등의 비즈니스 환경을 갖추고 있다. 파라과이는 향후 수출 확대는 물론, 남미공동시장 역내 제조업 진출 거점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파라과이 시장에서 신차 모델별 점유율 상위 20위 가운데 한국산은 40%를 차지했다.

한국 자동차용 케이블 제조업체가 현지 최대 규모의 자동차 부품 제조·수출기업으로 성장한 사례도 있다. 이날 TIPF 체결식 직후 이어진 한·파라과이 통상장관 회담에서 양측은 양국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TIPF 활용 방안, 산업·에너지 협력, 한·남미공동시장 무역협정(TA) 진전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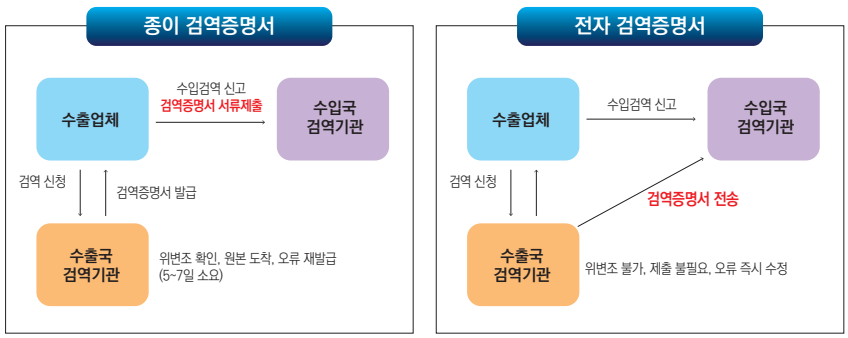
양측은 향후 TIPF 산하 무역투자협력위원회(TICC)를 통해 협력 의제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정 본부장은 “파라과이 산업통상부와의 협력채널은 양국이 통상, 산업, 에너지 분야 경제협력을 본격 추진해 나가기 위한 발판을 최초로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향후 양국 간 실질 협력사업을 발굴·추진하는 중요한 플랫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FTA 동향 ④

해양수산부, 종이 없는 검역 시대 첫 걸음… 호주산 수입수산물 전자검역증명서 시행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원장 양영진)은 2024년 9월 2일부터 수산물 검역 최초로 호주산 수산물 수입 통관시 종이증명서가 아닌, 디지털 방식으로 발급하는 전자검역증명서*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 검역증명서: 수출수산물이 검역대상 질병에 감염되지 않았음을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하는 보증서



자료: 해양수산부

이번 전자검역증명서 시스템 도입은 2022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호주 농림수산임업부가 체결한 '한-호주 전자검역증명서 상호 교환 체계구축을 위한 의향서 교환' 따라 진행되었다. 그동안 양 국가간 상호 송수신 시스템을 개발 완료하고 시험 운영까지 마친 상태이다.

* 호주 수입수산물 검역 통계(건/톤): (2021) 249/176 → (2022) 187/101 → (2023) 142/80

전자검역증명서 시스템이 도입되면 민원인의 편의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입 시 원본으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직접 제출해야 했던 검역증명서를 관세청 통관단일창구(Unipass)를 통해 호주 정부가 전송한 전자검역증명서 번호를 조회하고 입력하여 간편하게 수입검역을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종이 검역증명서 발급 시 증명서 형식이나 내용에 문제가 있을 경우 5~7일 정도 소요되던 확인·보완 기간을 단축할 수 있어 시간 · 비용의 절감으로 교역국 간 무역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진위여부 확인 건수: (2021) 12건, (2022) 7건, (2023) 15건

또한 국가 간 검역증명서의 전자전송으로 검역증명서 위변조와 분실의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어 수입 수산물의 안전관리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영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번 최초로 도입되는 호주와의 전자증명서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외국 정부와 수산생물 전자검역증명서 도입을 확대하여 질병으로부터 안전한 수산생물이 수입될 수 있도록 검역 서비스 전반에 걸쳐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전자증명서 구축 협의 예정국: (2024) 필리핀, (2025) 인도네시아·노르웨이

FTA 동향 ⑤

관세청, 전자상거래 수출기업들, 쉽고 저렴한 수출길 열렸다

관세청은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한다고 7월 1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지난 2월 27일 발표한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종합계획」 100대 추진 과제 중 하나로서,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의 세관신고 부담과 수출물류비 절감을 위해 추진됐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간이수출신고 대상 확대: 수출금액 '200만 원 이하→ 400만 원 이하'(8.1.부터 시행)

○ 일반 수출신고에 비해 신고항목이 간소한 간이수출신고*가 가능한 금액 기준이 종전 '200만 원 이하'에서 '400만 원 이하'로 10년 만에 두 배 상향된다.

* [전자상거래물품 간이수출신고 제도: 2014년 7월 도입] 일반수출신고에 비해 신고 항목이 간소(57개 vs. 27개)하며, 신고에 따른 수출실적 인정 및 관세환급 등 혜택은 동일

○ 이로써, 고가의 전기·전자기기 등을 포함한 전자상거래물품 대부분이 간이수출신고가 가능해져 업계의 통관절차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❷ 복수 수출자의 간이수출신고물품에 대한 '합포장' 허용(8.1.부터 시행)

○ 종전에는 여러 수출자의 물품을 하나의 포장단위로 '합포장'하여 선적하는 것은, 수출신고 물품이 실제 선적되었는지 세관에서 확인이 어려워 불허하였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허용하기로 하였다.

○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수출이 늘어나면서 주문자가 동일한 경우 여러 입점 판매자(수출자)의 물품을 하나로 포장함으로써 물류비를 절감하고자 하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 또한, '합포장'을 하는 경우에도 적재이행신고를 통해 적재여부를 관리할 수 있도록 세관시스템도 개선할 계획이다.

❸ 목록통관 수출통계 생성 기반 마련 등(내년 8월 시행 예정)

○ 향후 수출정책 수립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물품 목록통관* 수출시 품목번호(HS) 2단위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여, 수출통계 생성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 현재 목록통관은 품목번호 기재의무가 없고, 수출실적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만 품목번호(HS) 10단위까지 기재

○ 또한 사업자등록번호·품목번호(HS 10단위)가 기재된 목록통관자료를 국세청에 제공*하여, 수출실적 인정은 물론 간편하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과세자료 제출·관리법령」이 개정(2024.2월)되어 목록통관자료를 국세청에 제공

관세청 전산시스템 개선 필요로 ❶·❷의 개정사항은 2024년 8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이외 개정사항은 관련된 기관과 업계의 시스템정비 등 준비에 필요한 기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내년 8월에 시행할 계획이다.

고석진 관세청 통관국장은 "앞으로도 기업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제도는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우리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FTA 동향 ⑥

한국원산지정보원, 연구기획실'FTA BRIEF'발간 !

한국원산지정보원 연구기획실은 수출입물품의 원산지정보 수집·분석과 FTA 활용 및 검증 지원에 필요한 연구를 수행하여 국민이 신뢰하는 원산지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경쟁력 강화와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연구기획실은 올해 3월부터 그동안 축적된 FTA 원산지 연구의 결과와 정보 등을 기업들이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수록하여 매월 「FTA BRIEF」를 E-Book으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FTA BRIEF」는 최신 국내외 통상이슈 등을 고려하여 FTA 동향과 원산지결정기준 해설, FTA 활용정보 등 기업들의 FTA 활용에 도움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FTA BRIEF 3월 호 디자인본

자료 : 한국원산지정보원 홈페이지

연구기획실은 앞으로도 3개 팀(정책연구·활용연구·정보분석)에서 분석한 FTA·원산지 정보를 바탕으로 기업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양질의 정보를 제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월간지 형태로 제공되고 있는 'FTA BRIEF'는 한국원산지정보원 공식 홈페이지 https://www.origin.or.kr/ 를 통해 E-Book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내 확인 경로 : 한국원산지정보원 홈페이지 접속 → 발간자료 탭 → FTA BRIEF

한국원산지정보원 'News letter 구독'을 신청하면 연구기획실이 분석한 다양한 결과물을 해당 이메일로 매월 뉴스레터를 발송해드립니다.

*** News letter 구독 신청 경로 :** 한국원산지정보원 발간자료 탭 → News letter 구독 신청 → 수신 이메일 입력(개인정보 수집 동의) 후 신청 클릭

2024년 한국원산지정보원 'FTA BRIEF' 기고 현황

월	소속	기고자	제목
03	정책연구팀	박현혁 전문연구원	만두의 유럽 시장 공략, 원산지결정기준부터 알아보자!
	활용연구팀	오윤진 선임연구원	복잡한 중국 관세율, 수출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체약상대국 관세율표 활용 정보 〈중국편〉
04	정책연구팀	김세라 전문연구원	품목별 원산지기준(조합기준)을 파헤쳐보자 – 홍삼 조제품을 사례로
	정보분석팀	김민준 전문연구원	지피지기(知彼知己)면 백전불태(百戰不胎) – 중국의 FTA 추진전략 현황과 특징
05	정보분석팀	한승오 전문연구원	2024, 한-베트남 FTA 농축수산물 관세 대부분 철폐 – 베트남산 농축수산물 원산지정보 확인 방법 안내
06	활용연구팀	구지현 전문연구원	2024년 미국 대선과 관세정책의 변화 – 한·중 對미 수출경합품목 분석과 FTA활용을 중심으로
07	정책연구팀	윤호성 팀장	사례를 통해 이해하는 누적기준과 충분가공원칙의 관계
08	정보분석팀	이범수 전문연구원	EU 공급망실사지침 발효, 한-EU FTA 수출기업도 대응 전략 수립 필요
09	정책연구팀	이나현 선임연구원	FTA 상대국 바이어가 요청하는 HS와 한국 수출 HS가 다른 경우 어떻게 해결할까?

FTA 동향 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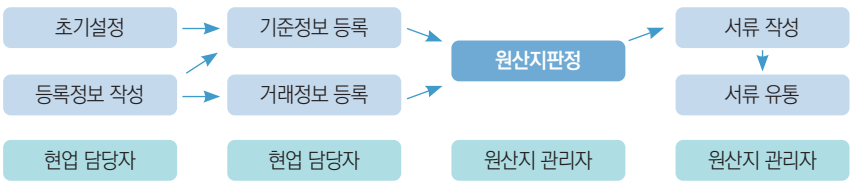
한국원산지정보원, 정보화운영팀 FTA 활용 무역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한민국 최고 FTA·원산지 솔루션'FTA-PASS'보급

대한민국은 수출주도형 경제국가로 제조 · 수출기업이 FTA를 활용함으로써 무역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FTA 활용을 위해서는 원산지 규정, 원가회계, 품목분류, 생산공정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담당자의 원산지관리가 필요하나 중소기업은 인적·재정적 자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열악한 기업 환경하에서 기업의 FTA 활용을 위해 원산지관리 담당자가 최소한의 지식으로도 체계적으로 간편하게 원산지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업무시스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관세청 주관으로 FTA·원산지 전문 공공기관인 한국원산지정보원의 정보화운영팀은 제조 ·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 개발·보급을 수행하고 있다.

2009년 표준 원산지관리시스템의 프로토타입을 개발한 후 FTA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FTA-PASS라는 브랜드로 2010년에는 PC 버전을, 2011년에는 Web 버전을 구축하여 보급하였다. 이후 FTA가 신규 발효되거나 기존 FTA의 원산지 규정이 변경되는 경우 해당 사항을 FTA-PASS에 반영하여 발효시기에 맞추어 기업이 원산지관리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2024년 8월 말 현재 FTA-PASS는 59개국과 체결한 21개 FTA의 원산지관리를 할 수 있다.

FTA-PASS를 활용한 원산지관리 절차



또한 정보화운영팀은 기업의 원산지관리 담당자가 FTA-PASS를 활용하여 원산지를 판정하고 필요한 원산지증빙서류를 발급 및 유통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업지원을 수행한다.

구분	지원 방식	내 용
직접 지원 (상시)	문의상담	사용자가 FTA-PASS를 활용하며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대표 전화(1544-0645) 또는 메일(fta-pass@origin.or.kr)로 문의하면 기업지원 전담자가 상담 지원
	원격지원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원격연결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사용자의 시스템 화면을 함께 보며 이해하기 쉽게 사용 방법 안내
	현장방문지원	기업지원 전담자가 FTA-PASS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기업에 직접 방문하여 기업의 상황과 요청사항에 맞추어 시스템 활용 지원
	협력사교육	협력사로부터 신뢰성 있는 원산지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 협력사가 FTA-PASS를 활용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집합 또는 화상 방식으로 협력사를 대상으로 FTA-PASS 활용실습 교육 제공
간접 지원	소식지 발간 (월간)	FTA 관련 이슈사항과 FTA-PASS의 기능개선 및 활용방법에 대한 컨텐츠를 회원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이메일 발송과 홈페이지 게재 방식으로 제공
	설문조사 (하반기 진행)	FTA-PASS의 기업활용 제고를 위해 매년 만족도 조사와 함께 사용자의 개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반영가능한 개선 의견은 전담 기술인력이 분석, 설계, 구현, 점검 절차로 유지보수 수행

FTA-PASS 문의처 : 1544-0645, fta-pass@origin.or.kr

한국원산지정보원 정보화운영팀은 대한민국 최고 FTA·원산지 관리를 위한 솔루션인 FTA-PASS를 안정적·지속적으로 보급함으로써 제조·수출기업의 신속·정확하고 체계적인 원산지관리를 통한 원활한 FTA 활용을 성원하고 있다.

FTA 동향 ⑧

한국원산지정보원, 교육자격팀 'FTA·원산지 분야 전문인력 양성'

교육자격팀은 수출입기업의 FTA 활용지원을 위해 FTA·원산지 분야 전문교육, 자격검정, 전문도서 발간 등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먼저 YES FTA 전문교육은 FTA 저변인력 확대를 위해 2017년 실시된 교육사업으로 2024년 약 4,600여명의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연중 운영되고 있다.

YES FTA 전문교육은 기업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교육과정과 수준 높은 교재 제작·보급을 통해 실무자들의 FTA 활용 역량 강화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교육 소외지역 수요자 지원 및 수강 편의성 증진을 위해 집합과정 외에도 방문교육, 화상 및 온라인 교육을 전액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FTA 동향 및 통상 이슈 등에 대해 정기적 특강을 개최하는 등 원활한 FTA 활용 환경조성과 수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2024년 YES FTA 전문교육 커리큘럼

분야	과정명	주요내용	시간
집합·화상 (9개)	FTA 기초	FTA 기초, FTA 협정 및 법령, 수출입통관 실무 등	6
	FTA 심화	HS의 이해,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증명제도 등	6
	원산지관리시스템 활용	원산지관리시스템 이해, 데이터작성 실무, 서류 발급 등	6
	품목분류	HS 제도 이해, 통칙 및 주규정, 품목분류 사례 등	4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수출자 제도 개요, 인증수출자 신청 절차 등	4
	원산지검증	원산지검증 총칙, 절차, 대응요령 등	4
	원산지판정 및 증빙서류 작성 실습	원산지판정 절차 및 원산지증빙서류 작성 실습 등	4
	FTA 활용 및 검증 대응 전략	FTA 동향, FTA 활용 및 검증 대응을 위한 관리 전략 등	4
	수입기업 FTA 활용 실무	수입물품 FTA 특혜관세 신청 및 사후관리 등	4

분야	과정명	주요내용	시간
온라인 (6개)	원산지인증수출자 신청하기	인증수출자 신청방법	1
	C/O작성하기	원산지증빙서류 작성방법	1
	HS 통칙 이해하기	HS 통칙 이해 및 사례	1
	원산지관리시스템 사용하기	FTA-PASS 사용방법	1
	원산지결정기준 이해하기	원산지결정기준의 일반기준 및 특례기준 이해	1
	원산지검증 이해하기	협정별 원산지검증 방법 및 절차 이해	1

2024년 특강 개최 내역

월	주제
6월	사례를 통한 원산지규정의 해석 및 적용 방법 /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전략
7월	전기·전자 산업 FTA 활용 실무
9월~12월 (예정)	임산물, 섬유산업 FTA 활용 실무 /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전략

원산지관리사 및 원산지실무사 자격은 FTA·원산지 전문가 육성 지원을 위해 도입되었으며, 연 평균 약 700여명의 자격사를 배출하고 있다.

자격취득 후에는 주로 수출입·제조·물류 기업으로 진출하고 있으며, FTA 활용 전략 수립, 원산지 판정 및 증빙서류 작성·발급 등 전반적인 FTA·원산지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자격시험은 현재 연 2회 실시되고 있으며, 오는 11월 9일 제35회 원산지관리사, 제19회 원산지실무사 자격시험을 앞두고 있다.

원산지관리사 및 원산지실무사 자격시험

자격명	유형	과목	시간
원산지관리사	국가공인 민간자격	FTA 협정 및 법령, 품목분류, 원산지결정기준, 수출입통관	120분
원산지실무사	민간자격	FTA 원산지이론, FTA 원산지실무 (원산지관리시스템 포함)	60분

또한 교육자격팀은 기업 실무자·자격시험 수험생 등 다양한 주체가 학습 및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FTA·원산지 관련 이론·법령·제도 분야에 대한 전문도서를 발간·보급하고 있다.

2024년 총 10종의 도서를 발간하였으며, 앞으로도 현장 수요에 부합하는 전문도서 개발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 발간도서 (이론·법령·제도)

위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FTA원산지아카데미(ftaedu.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FTA TRADE REPORT